

시카고 그린 페스티벌 2011

시민이 참여하는 그린 전시회

청정 도시로 알려진 시카고에서 2011년 5월 14일~15일 양일간 그린 페스티벌이 개최되었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매년 6개 미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개최되고 있는 그린 전시회는 Green America와 Global Exchange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으며 올해로 11회 째를 맞이하였다. 이 전시회는 다른 그린 관련 전시회보다 일반 소비자의 친환경 생활 활성화와 참여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친환경 생활을 통해 환경, 경제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리고 또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 공유하자는 취지로 개최된다.

전시장 전경



출처 : www.greenfestivals.org

그린 자동차를 전시한 포드 자동차 부스



출처 : www.greenfestivals.org

이번 전시회에는 개막식 행사로 일리노이 주 부 주지사인 Shiela Simon이 참석하여 기조 연설을 하였으며 일리노이 주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일반 시민과 함께 지역사회 기업 관계자가 활발하게 참석하였으며, 특히 적극적인 친환경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 기업인, 교육자들이 참가하여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친환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다양한 워크숍을 통해 노하우를 전수하였다.

소비자 참여 위주의 종합 그린 전시회

전시회 주관기관인 Green America는 환경보전을 실천하는 기업

만을 참가업체로 심사하여 진정한 친환경 제품만이 소개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300여개의 기업이 참가하였는데 유기농 맥주, 와인을 비롯해 비누, 부엌타일 등 다양한 제품이 소개되었다. 또한 생산지에서 임금 착취를 하지 않고 공정 무역 거래를 통해 생산된 커피, 차, 식용유, 초콜릿도 전시되었다.

이번 전시회의 가장 큰 특징은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면 친환경 그린 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전시회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각 개인의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 지구 환경을 보존하고

오염 없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강조하여, 소비자에게 친환경 생활에 대한 동기를 부여코자 하였다.

자동차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포드 자동차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자동차를 전시하여 관람객들이 직접 시운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더불어 환경 개선 활동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지역 사회 단체를 포상하기 위해 5,000달러를 기부 하였으며 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과 그린 자동차 전략을 발표하였다.

신재생 에너지 전시관에서는 주택 개보수를 위한 다양한 그린 제품들이 전시 되었으며 주택과 빌딩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시연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설치 방법에 대한 워크숍도 개최되어 관람객과 소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요리 전시관에서는 다양한 유기농 제품을 활용한 요리 방법과 치즈 만드는 방법 등을 직접 소개하여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유기농 맥주와 와인은 무료로 시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는데 관람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유기농 주류의 새로운 시장 확대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었다. [K](#)

태양광 발전 패널



출처 : KOTRA 시카고 KBC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농작물



출처 : KOTRA 시카고 KBC